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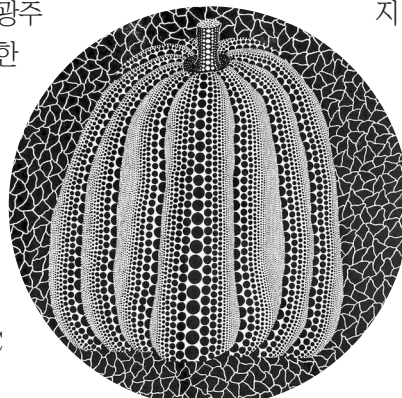
국내외 거장부터 지역 작가까지 ‘작품’ 짚해볼까

빛고을미술시장 22~25일까지 ‘광주국제아트페어’

DJ컨벤션센터 12개국 94개 갤러리 113개 부스 운영
아이 웨이웨이·쿠사마 야요이·이배·서도호 작품 등
현대미술 영웅·프로포즈·라이징 스타…조직위 주무

빛고을미술시장을 표방해온 ‘광주국제아트페어’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개막한다.
광주문화재단은 최근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최로 ‘제17회 광주국제아트페어’(아트광주)를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 A·B·C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아트페어는 국내 82개 갤러리와 프랑스, 일본, 몽골, 중국, 미국, 싱가포르, 스페인, 독일, 조지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 해외 11개국 12개 갤러리를 합쳐 12개국 94개 갤러리, 113개 전시 부스, 작가 600여명 규모다. 이중 사우디아라비아는 10여년이 넘도록 명단에 없다가 이번에는 이집트 작가를 꾸려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아트페어에는 총 11개국 94개 전시 부스, 600명 작가, 출품작 4400점 규모로 진행된 바 있다. 올해 아트페어 부스는 갤러리 부스 99개와 특별전 부스 5개, 관람 편의를 위한 서비스 부스 9개 등이다. 그 부스들을 통해 회화·조각·판화·사진·설치·미디어아트·공예 등 동시대 미술 전 장르를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111개 부스와 비슷하고, 참가국 등도 큰 차이가 나



쿠사마 야요이 작 Pumpkin

지 않는다.

지역 예술 생태계의 중심축인 ‘아크갤러리’, ‘젬마 갤러리’ 등 지역 갤러리들의 참여가 예년 보다 크게 늘어 광주 37곳과 전남 12곳 등 전남광주 지역 갤러리 49곳이 참여해 전체 참여 갤러리의 절반을 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현대미술의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의 별세라든가, 8월 쿠사마 야요이의 별세로 팝아트 계열이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아이 웨이웨이(Ai Weiwei), 웨민준(Yue Minjun), 자오자오(Zhao Zhao) 등 글로벌 미술시장의 주목을 받는 국내외 거장들의 작품이 미술소장가의 선택을 기다린다. 이들 작품은 세계적 화랑 ‘탕 컨템포러리 아트’ 소속으로 빛고을미술시장에 나온다. 또 한국화의 거장 의재 허백련을 비롯해 김구림, 오승운 등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관통하는 작가들의 작품과 무라카미 다카시(Murakami Takashi), 에드가 플랜즈(Edgar Plans) 등 세계적 작가들의 작품들도 망라됐다. 여기서 몽골의 ‘Mongol Art Gallery’는 몽골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데 이어 ‘금산갤러리’, ‘유엘갤러리’ 등 국내 주요 갤러리와 이이남 작



데이비드 호크니 작 'Focus Moving'

가 등을 선보이는 ‘예술공간 집’ 등 지역 갤러리도 함께한다.

‘현대미술의 영웅’과 ‘프로포즈’·‘라이징 스타’ 등 특별기획전은 부스를 돌며 방문객들의 몰입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먼저 ‘현대미술의 영웅’전에서는 앤디 워홀(Andy Warhol),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 키스 해링(Keith Haring) 등 현대미술의 흐름을 바꾼 거장들의 명작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고, 컬렉터 소장품전 ‘프로포즈’는 지역 미술 애호가들의 컬렉션을 통해 작가의 가능성과 소장자의 가치를 조명하는 아트광주의 시그니처 기획전으로, 올해는 이강운, 이배, 서도호, 양해규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소장품 형태로 소개된다.

이와 함께 신진작가 발굴전 ‘라이징 스타’는 올해

부터 대상 범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넓혀 김영진, 김하슬, 유수연, 전정연 등 청년작가 4명이 소개된다. 빛과 움직임으로 미디어아트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스펙트럼’전도 관람객의 오감을 자극한다. 이와 함께 광주장애예술인협회, 광주장애인미술협회와 연계한 특별전도 마련된다.

이밖에 도슨트 확대나 키즈아트 프로그램, 단체 관람 신설 등 관람객 친화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올해는 전문 도슨트를 지난해 3명에서 5명으로 늘려 퍼블릭·VIP 도슨트 투어를 운영하며, 관람객들에게 현대미술의 흐름과 미술시장 트렌드를 생생하게 전한다. 도슨트 투어는 1인 5000원으로 에스24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고, 참여자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된다. 가족 관람객을 위한 ‘키즈아트 프로그램’은 3종의 체험 프로그램(1만 5000원~2만 5000

원)으로 운영되며, 체험 프로그램 구매 시 아트페어 입장권 2매가 무료로 제공된다. 2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을 위한 입장권도 새로 도입했다.

지난달 21일부터는 ‘아트광주 미술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미술관, 의재미술관, 이강하미술관 등 광주 6곳과 함평군립미술관, 영암군하정음미술관 등 전남 4곳 등 전남광주 지역 미술관 10곳을 잇는 스탬프 투어로, 미션을 완료하면 에코백 등 굿즈와 아트광주 입장권을 받을 수 있다. 미술주간은 행사 마지막 날인 25일까지 이어진다.

입장권은 21일까지 롯데캐, 에스24, 99터켓에서 사전 예매할 수 있으며, 현장 판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VIP티켓은 5만원에서 4만원으로, 아른은 1만5000원에서 1만원, 청소년은 1만원에서 6000원, 어린이는 8000원에서 4000원으로 할인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과 광주비엔날레·여수세계섬박람회 관람객, 광주미술관 ‘실재와 환영의 미로’ 관람객에게는 현장 할인이 적용된다. 미술 전공 대학(원) 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취학 아동, 65세 이상 관람객은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는 입장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관람객들 편의를 위해 컬렉터스 라운지와 퍼블릭 라운지, 아트숍, 작품 포장실, 와인 시음과 판매를 겸한 아트바가 운영되며, 라운지는 루다커피숍과 협력해 운영된다. 지역이 함께 만드는 아트페어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조직위원 82명을 꾸렸으며, 후원원은 지난해 6곳에서 올해 25곳으로 늘어났다.

VIP·프레스 오픈은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개막식은 같은 날 오후 5시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로비에서 열린다. 전시장은 22일부터 24일까지는 오후 7시까지, 마지막날인 25일에는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제17회 광주국제아트페어’(아트광주)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 A·B·C홀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광주아트페어 모습.

91년의 시간을 품은 스크린, 다시 100년을 꿈꾸다

1935년 문을 연 광주극장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91년의 시간을 영화제로 되새긴다.

광주극장과 광주시네마테크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광주극장에서 ‘개관 91주년 광주극장 영화제’를 갖는다.

이번 영화제는 100년을 향하는 첫걸음의 마음으로 마련됐다.

개막작은 올해 개봉 100주년을 맞은 버스터 키튼의 ‘제너럴’이다. 실제 기관차를 활용한 대담한 스텐트와 장대한 스케일, 정교한 시각적 유머가 어우러진 작품으로, 무성영화 시대가 남긴 대표적 성취로 꼽힌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동시대 영화의 최전선에서 독자적인 영화 세계를 구축해 온 포르투갈 출신 감독 페드로 코스타의 작품을 집중 조명한다. 페드로 코스타는 실제 인물들과 오랜 시간 함께하며 극영화와 다큐멘터리의 경계를 허물고, 쉽게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삶과 기억을 영화적 시간 속에 담아온 감독이다.

광주극장 개관 91주년 영화제 내달 15일까지 열려
개막작 버스터 키튼 ‘제너럴’…페드로 코스타 조영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공연·시네토크 등도

이번 특별전에서는 데뷔작 ‘피’를 비롯해 ‘용안의 집’, ‘반다의 방’, ‘행진하는 청춘’, ‘호스 머니’, ‘비탈리나 바렐라’ 등 모두 6편을 상영한다. 카보베르데와 포르투갈을 잇는 이주의 기억, 리스본 폰타이나스 주민들의 일상, 철거된 공동체의 기억과 이주 이후의 삶 등을 통해 그의 영화 세계를 살펴본다.

개관영화제의 메인 색선인 ‘클래식 아카이브’에서는 영화사의 고전들을 다시 만난다. 버스터 키튼의 무성 코미디 ‘전문학교’, 존 포드의 서부극 ‘수색자’, 알랭 레네의 ‘지나해 마리앙바데서’, 기 질의 ‘벽의 각인’, 스탠리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상영된다.

극장이라는 공간의 특색과 장소성을 담은 ‘극

장의 밤’ 색선에서는 폐관을 앞둔 극장의 마지막을 담은 차이밍량의 ‘안녕, 용문객잔’, 광주극장 곳곳에서 펼쳐지는 뮤지션들의 노래와 이야기를 기록한 ‘버터네고 존재하기’, ‘서서히 사라지는 밤’, 광주극장에서 밤새 촬영된 박세영 감독의 ‘특근’ 등 4편이 관객을 기다린다.

올해 ‘봉준호의 극장 노트’에서는 봉준호 감독이 추천한 루키노 비스콘티의 ‘로코와 그의 형제들’과 존 카사베츠의 ‘글로리아’가 스크린을 채운다.

한국영화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농촌 마을의 일상과 사람들을 담은 최승우 감독의 ‘지난 여름’과 ‘지난 여름 이후’가 연속 상영되며, 박정미

감독의 ‘담요를 입은 사람’, 김면우 감독의 다큐멘터리 ‘희생’,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관객과 만난다.

영화제 기간에는 관객과의 만남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김희정, 박홍렬,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유은성 영화평론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조명감독 프로그래머가 참석하는 시네토크가 진행된다. 최승우, 김면우, 박정미 감독과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도 열린다.

이외에도 영화와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네콘서트가 마련돼 관객과의 만남을 넓힌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지난 12일 광주극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다. 광주극장은 역사적·문화적·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광주극장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올해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며 관람환경을 개선했다. 영화산업과 영화관의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의 후원과 기부, 관객들의 응원으로 극장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

지역 예술인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
광주문화재단, 내일 방식 등 논의

광주문화재단이 지역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돌봄공간 조성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광주문화재단은 20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제11층 문화보존10000센터에서 ‘예술인 자녀돌봄공간’ 조성 위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는 가운데 참석자 10명을 모집한다.

이번 인터뷰는 공연과 전시, 창작활동 등으로 불규칙한 시간에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겪는 자녀돌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실제 돌봄 수요를 반영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이날 예술인 자녀돌봄지원사업과 공간 조성계획을 안내한 뒤 참석자들과 심층인터뷰 및 자유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내용은 예술활동 중 발생하는 돌봄 공백과 이용 수요, 이용대상 및 적정 연령, 평일·주말 운영시간, 사전예약·반복예약·긴급돌봄 등 이용방식, 안전관리와 공간구분,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지역 최초로 조성되는 예술인 자녀돌봄공간은 광주 동구 계림초등학교 인근 어린이집을 활용해 마련할 계획이다. 재단은 이번에도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세부 운영지점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참석 대상은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향후 자녀돌봄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 예술인이다. 참여 희망자는 구글폼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신청 현황에 따라 참석 인원은 조정될 수 있으며,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사은품과 다과가 제공된다.

배동환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은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직접 듣고 실제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돌봄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페드로 코스타의 감독 데뷔작 ‘피’ 스틸 컷.

‘호프’

‘수색자’

영화제 개막작인 ‘제너럴’ 스틸 컷.